

더라

○(兩班郡守)新任한安岳郡守李義惠氏가 장차赴任을 할터인디 治行錢을 判出치 못하여 其門下에 出入하는 李士弘으로 下換錢을 廣求하든 處에 맞춤 金濟愿이란 사람이 下換을 得給하고 其地土産을 買來하량으로 李士弘과 合히 李安岳家에 往하여 換錢約條를 言論할시 猝地에 李安岳이 号令하여 曰汝以商民으로 焉敢이 兩班압헤 너라고 하는야 하며 毆逐이 至신하니 萬一그 분이 該郡에 到任하면 兩班노릇하노라고 郡守노릇은 잘못하리라고 本社에 投書가 來하얏더라

○(返鏡索照)八月二十九日에 外部에서 日本國前總理大臣伊藤佐爵을 請하야 宴饗할시 佐爵이 그 眼鏡을 失하얏스즉 敬待하노 外賓에 對미우 無色하故로 秘書課長趙性協氏가 其時宴饗所에 舉行하든 下人을 沒數히 汰去하얏다니 우리는 此事件에 對하야 不然할줄 不知하는거시 其時舉行하든 下人이 竊盜賊이라고 指目할수도 업고 또 下人이 舉行치안코 官員만 잇서 對면코 官員을 다 免官하얏슬는지

○(孰是孰非)咸興民鄭某가 本社에 寄書하얏는디 本道觀察使黃耆淵氏가 公正하고 綜明하야 治蹟이 一道에 振行하거늘 所謂北靑鄉人輩가 京鄕에 出沒하며 興訛造詐하야 聽聞이 浪藉할것이 다 渠의 誣妄이라고 하얏스니 우리는 隨聞隨記하거니와 누가 是하며 누가 非하거슨 知치 못하노라

○(慶祝餘興)지나간 陰曆十六日은 惟我大韓開國紀元節이라 某某縉士더리 獨立館에 來하야 慶宴을 參席하고 餘興未盡하야 西江으로 卽出하야 五六隻大申船을 上下에 쓰고 歌童舞妓로 終夜도록 樂遊하다가 將明에 歸家하얏다더라

○(內相秉公)新任한 內部大臣 李根命氏가 그 門人더러 말하디 নিজ이 날마다 오노 손임은 外任일는지 內職일는지 아니 식히리라고 한다더라

○(得債爲官) 평양 眞위디 崔위 김창영이가 제 지조업시 님의 지조를 사가지고 스관이 되말은 본사에서 임의 피지 하얏거니와 그 後후 리력을 지세히 드른즉 김씨가 작년 삼월에 윤길선의 돈을 빚어 가지고 서울을 나와서 모처에 밋치고 청하야 崔위를 도둑하여 가지고 느려가 스관을 든니는디 윤길선이 그 빚을 받으려하즉 김씨는 본리 오입지데라 갑흘돈이 업고 그 빚부 김박천의게 물너려하니 그 빚부가 엇지 갑기를 도화하리오 대더 김씨의 형실 피악 할거슨 이무가론이 언니와 유씨로 론하야도 당초에 년쇼흔 외입지데을 빚주는일이 엇지 온당 하리오 스관이라 하거슨 기예를 잘 비화 가지고 병명을 거느려 民國을 보호 하자는 거신디 오입지데가 돈을 가지고 스관을 도둑하야 오입으로 스무를 삼으니 빚성이 엇더케 보호시킴을 넘으리오 하고 본사에

편지가 왔기로 피지 하노라

○(路失家卷) 음력 七月十二日에 서서 반송방 관후동 사는 金元順이가 길에서 家卷을 잃어스오나 누구시던 지 엇으시거든 신문밖고 마청안에 와 家主를 초져주시면 감사이알고 슈공을 갚겠다고 하더라

○(濶戶爲露戶)南署 뒤넝골 언니우물 에 사람이 빠져죽은지 三四日後 비로소 日前에 건져져 본죽 이십여세 씬된 男子라 동리 사람들이 會同 하야 죽은 사람을 殮할즉 東大門內 午橋스 마춤 巡檢이 와서 말하되 검시후후가 저가게 한다 하고 우물압해 뒤여둔 지 슈일이 되도록 검시를 안이 하여 日氣가 훈징 하미 신체의 악취가 축비하고로 동리 사람이 미우 피로이 지닌다더라

○(警官其人)근일 강저의 불안당이 대단이 처성 하야 거민이 미오 괴로이 지니더니 다행이 서서경무관 李宗夏氏가 그 괴슈 슈숨명을 잡았는디 여러날 밤을 식고 습기가 침노하야 다리에 종괴가 나서 어젯게 의원을 보코 치료 하는디 그쳐로 병이 잇서도 누름을 디하야 말하기를 그 도적놈을 다잡지 못하고 병이 나서 미우의 들썩분한 일이라고 하드라 하니 경무관이 다이 사람쳐로 마음을 먹으면 절발지 환아 영영 업스리라 고 들한 다더라